

『구역』과 『개역』 한글 성경의 비교 및 평가 — 바울서신의 번역을 중심으로 —

유은걸*

1. 시작하는 말

성경 번역의 개정은 항상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그 소기의 목적이 항상 달성되는 것은 아니다. 개정이 때로 ‘개선’은 커녕, ‘개악’을 초래한다고 성경 번역가들은 자조하기도 한다.¹⁾ 이런 맥락에서 그간 수많은 개정의 손길이 닿은 개역 성경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는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다.²⁾ 이 평가는 향후 한글 성경이 번역되거나 개정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 시금석의 하나는, 『구역』 성경이 『개역』으로 바뀌면서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살펴보는 것이다.³⁾ 본 소론의 목적

* Universität Heidelberg에서 신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호서대학교 연합신학전문대학원 신약학 교수. jakob38@daum.net.

- 1) 이런 현상은 성서 번역사 중 한 페이지를 기록할 루터 성경의 번역에도 적용된다. 루터 성경의 1984년 개정은 많은 독일의 학자들에게 ‘개악’의 사례로 거론된다. 이에 대해서, Ch. Kähler, “Erneute Durchsicht der Lutherbibel: Probleme, Grundsätze, Ergebnisse und offene Fragen”, M. Lange, M. Rösel, hg., *Was Dolmetschen für Kunst und Arbeit sei: Die Lutherbibel und andere deutsche Bibelübersetzung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165-182. 켈러는 루터 성경 번역의 여러 개정이 낳은 문제점을 매우 솔직하게 지적한다. 이 논문은 본 학술지에 번역, 게재되었다. 크리스토프 켈러, “루터 성경의 재검토: 문제, 원칙, 결과 및 남은 문제”, 유은걸 역, 「성경원문연구」 36 (2015), 311-330.
- 2) 독특하게도, 한국 개신교회에서 독보적인 권위를 인정받는 예배용 성경은 『개역』이라는 이름으로 통칭한다.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두 알고 있으나, ‘무엇을 어떻게 고친 것인지’는 잘 질문하지 않는다. 『구역』과 『개역』의 문제는 아니지만 아래의 책은 이런 문제에 답변하는 시도로 볼 수 있다.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 3) 필자가 아는 한 『개역』의 번역자가 『구역』을 바꾼 이유를 밝힌 이른바 ‘번역 노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다음의 자료에서 간접적으로 그 내용을 추측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으나,

은 『구역』과 『개역』을 비교, 평가함으로써 향후 우리말 성경의 개정 및 번역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2. 『구역』과 『개역』 한글 성경⁴⁾

2.1. 『구역』 성경의 특징

『구역』(또는 『성경전서』[1911])은 선교사들의 주도 아래 번역된 한글 성경이다. 일반 백성이 사용하던 구어를 사용하여 서민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역본으로서 문화사적 가치가 높다.⁵⁾ 그 중에서 신약성경은 두 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개정 작업 후에 완간되었기에, 시간상 쫓기며 완역되었던 구약성경에 비해서 완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구역』의 번역 방침 중 주목할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1) 선교사들이 주도적으로 성경을 번역하고 조선인 조사가 운문을 도왔다. 이 과정에서 공인역이 출간될 때까지는 각 권당 번역의 질이 균일하지 않은 모습도 보이게 된다. (2) 하나의 그리스어 본문을 대본으로 삼아 번역을 한다는 원칙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잘 지켜지지 않고 영역본이나 중국어 성경을 많이 참고한 듯하다.⁶⁾ (3) 『구역』은 직역을 원칙으로 번역하였으나, 당시 조선 백성의 관용어구도 적극 사용하여 당시 언중의 언어를 반영하고 있다.⁷⁾

번역하는 과정에 따른 역주나, 본문비평에 근거한 설명 등은 눈에 띄지 않는다. 다만 고유명사를 지명과 인명까지 구분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게 하였다. 이 전통은 『개역』과 『개역개정』에 이르기까지 유지된다. 또 존칭

구체적인 번역 사례에 적용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2권 켄뮤어 서신』(서울: 대한성서공회, 2006);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3권 밀러 서신』(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4) 『구역』성경은 1893년 상임성서실행 위원회가 조직된 이래로 1911년 『성경전서』가 완간된 것을 가리킨다. 『개역』성경은 1938년에 완성되었다. 흥미로운 것은 『구역』이 완성된 1911년에 이미 개정 작업에 착수하여 1938년에 마무리가 되었다는 점이다. 바로 『구역』은 완역과 동시에 개정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구역』과 『개역』의 번역 역사에 대해서는,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27이하를 참조하라. 두 역본의 번역사를 조망하는 것이 본 글의 목적은 아니다.

5) 소기천,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Canon&Culture』 4:1 (2010), 127.

6)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대본 고찰: 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 이런 사정은 구약의 번역에서 더욱 두드러진다. Ibid., 41-5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126, 136.

7) 이에 대해서, 박동현,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11-12.

은 하나님과 예수에게만 사용했다. 바울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도 반말투를 사용하고, 복음서에 보도된 예수의 설교도 그렇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부활 이후의 신앙, 나아가 그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입장을 반영하기 때문일 것이다. 각 성경 제목 아래에는 그리스어 성경 본래의 제목을 반영한 부제까지도 붙였다. ‘마태복음’이라는 제목 아래에 작은 글씨로, ‘마태의 기록헌대로 쓴 거시라’고 설명한다.⁸⁾ 미미한 측면이라고 볼 수도 있겠으나, 사복음서는 각 저자의 관점에 따라 예수 사건을 다르게 보도한다는 측면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2.2. 『개역』 성경의 특징

『개역』(1938)은 1911년 『구역』 번역자회를 해산하는 동시에 개역자회로 바뀌어서 더 분명한 개정 원칙을 세웠다. 이에 따라 『개역』 성경만의 특징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 중 몇 가지만 언급하면 다음과 같다.⁹⁾ (1) 개역자회는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된다. 이는 『구역』이 개인역처럼 번역이 진행된 후 그 역문을 검토하는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었다. (2) 번역은 히브리어, 아랍어, 그리스어 원문에서 직접 옮긴다. (3) 역어는 통일성을 갖춘 채 직역 위주로 채택한다. 간결하고 문법적으로 타당한 단어를 고른다. 이는 『구역』이 다양한 입말을 역어로 받아들였지만, 일관성이 부족했던 점을 감안한 것 같다.¹⁰⁾ 이 결과 흔히 지적하는 입말을 많이 담은 『구역』의 특성은 다소 희석되었으나, 공인역으로서 한결 짜임새를 갖춘 『개역』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우리가 주로 논할 신약성경의 『개역』은 구약성경에 비해서 많은 개정이 이뤄지지 않는 않았다. 그 주요 원인은 아마도 다음의 사정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구약이 1900-1911년 사이에 번역되었고, 그것도 번역이 부진하던 시기를 제외하면 1907-1910년 사이에 완역되었으므로 『개역』으로의 개정은 주로 구약에 집중되었다.¹¹⁾ 이에 반해 신약성서에는 이미 초역 과정부터 많은 시간을 들여 더 많은 손길이 닿았다. 1904년에 이미 『구역』의 신약이 개정되었고 1906년 오류를 더 수정하여 신약의 ‘공인역’을 완성하였던 것이다.¹²⁾

8) 이 설명은 1904년 임시역의 문구를 1906년 공인역에서 고친 것으로 보인다. 참조,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69.

9) 이에 대해서 Ibid., 121-123.

10) 소기천,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 130-137.

11) 구약성서의 번역 과정에 대해서는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70-82 참조.

12) Ibid., 61-70.

그러나 그렇다고 신약성서의 『구역』과 『개역』 사이에 미미한 변화만 관찰되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의 맞춤법에 따라 표기가 달라진 것에서부터, 신학적인 문제까지도 심도 있게 다른 흔적이 엿보인다. 1938년에 완성된 『개역』과 1998년 『개역개정』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 반면, 1911년 『구역』과는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까지 성경 번역의 역사가 격변기에 있었음을 감지할 수 있는 대목이다.

3. 바울 본문을 중심으로 한 개정 비교

위에서 논의한 『구역』과 『개역』의 특징은 과연 실제 성경 번역에서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가? 이 문제는 본문을 토대로 비판적인 점검을 거칠 것이다.

3.1. 한국어의 특징에 따른 개정

3.1.1. 맞춤법의 개정에 따른 변화

『개역』은 『구역』의 여러 단어들을 새로운 맞춤법에 의해서 달리 표기하였다. 물론 맞춤법 자체가 본문의 의미를 다르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 정서법의 변화는 국어사적인 의의가 더 크다고 할 수 있다.¹³⁾ 그 대표적인 사례는 ‘아래 아’(·)를 사용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1912년에 “보통 학교용 언문철자법”에서 이미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던 것이 『개역』에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이에 따라 “하느님” → “하나님”(골 1:25); “스자” → “사자”(고후 12:7); “므음” → “마암”(딤후 2:22); “스랑흠” → “사랑”(몬 1:9) 등으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용어 자체를 달리 선택한 것을 제외하면 표기법 자체가 획기적으로 달라진 것을 찾기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 ‘ㄴ’과 ‘ㄹ’을 피하는 두음법칙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것도 공통된 현상이다. “닐으기를” → “닐아기를”(엡 4:8); “령혼” = “령훈”(고후 12:15). 구개음화에 대해서도 같은 말을 할 수 있다. “디방” = “디방”(고후 11:10). 모음조화 현상은 두 번역 모두 잘 지키고 있다. “아바지” = “아바지”(엡 4:6); “도모지” = “도모지”(살후 3:11).

13)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전무용, “『성경전서』와 『성경개역』의 한국어 문장 비교: 요한 복음 1장~10장의 어순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33 (2009.7.), 155-177.

14) 이달,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 특징에 대한 고찰”, 『Canon&Culture』 4 (2010), 77.

3.1.2. 『구역』과 『개역』의 어순

신약성경의 『개역』은 어디까지나 『구역』의 개정이었고, 이미 1906년 공인역의 출간으로 구약성경에 비해서 현저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앞에서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역』과 『개역』을 대조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개정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중의 핵심은 어순과 관련된 것이다. 『구역』은 원문의 어순을 더 존중한 것이 드러난 반면, 『개역』은 한글의 어순에 따라 역어를 배치한 것이 눈에 띈다. 그 사례를 들어 보자.

바울의 율법 이해의 핵심을 드러내는 것으로 간주되는 로마서 10:4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못침이시니 모든 밋는자의게 의가 되셨도다” → “그리스도는 모든 밋는자의게 의를 일우기 위하여 율법의 맛침이 되시니라”. 『구역』은 τέλος γὰρ νόμου Χριστός εἰς δικαιοσύνην παντὶ τῷ πιστεύοντι의 문장 구조를 충실히 따르고 있으나, 『개역』은 εἰς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순서를 뒤집었다. 적어도 문장의 구조상, 본 진술의 핵심은 ‘믿는 사람의 칭의’보다 ‘그리스도가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는 것에 놓인다. 로마서 10:4의 함의는 10:1-4의 문맥에 매여 있으므로, 굳이 εἰς를 기계적으로 ‘목적’으로 처리할 필요는 없어 보인다.¹⁵⁾

고린도전서 15:21도 살펴보자. “사람으로 말미암아 스망이 싱겼스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자의 부활도 싱겼도다” →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스니 죽은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양 번역에 있어서 의미상의 차이는 찾아볼 수 없으나, 『구역』이 원문의 순서를 더 존중한 역문을 제시하고 있다. ἐπειδὴ γὰρ δι’ ἀνθρώπου θάνατος, καὶ δι’ ἀνθρώπου ἀνάστασις νεκρῶν. 아마도 한국어의 구조상 주어를 문두에 배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개역』의 번역자들이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원문의 단어 배치를 따르는 것 이외의 문제가 있음도 로마서 5:8은 잘 보여 준다. “오직 하나님씩셔 그 스랑을 우리의게 나타내셨스니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엿슬 썩에 그리스도씩셔 우리를 위햏야 죽으심이니라” →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엿슬 썩에 그리스도씩셔 우리를 위햏야 죽으심으로 하나님씩셔 우리의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나니라”. 두 번역본의

15) εἰς는 결과로 해석할 수도 있다. W. Elliger, “εἰς”, Horst Balz and Gerhard M. Schneider, eds., *EDNT I* (Grand Rapids: Eerdmans, 2004), 399. 참조, H. Räisänen, *Paul and the Law*, WUNT 29 (Tübingen: Mohr, 1987), 53-62. 이렇게 보면, ‘그리스도는 율법의 폐지가 되셨다’는 해석이 더 적절할 수도 있다.

주절과 종속절의 순서는 다르다. 『구역』이 원문의 순서를 충실히 지켰다면, 『개역』은 ὅτι라는 접속사가 이끄는 **이유의 종속절**이 한국어에서 문두에 놓여야 함을 중시한 것으로 보인다(아래 참조).¹⁶⁾

고린도후서 10:1에도 유사한 문제가 있다. “나 바울은 너희를 디면하면 겸손하고 썬나 편지하면 꺾세계 하는자라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너그러움으로 너희를 권하고” → “너희를 대하여 대면하면 겸비하고 썬나 잇스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이것은 원문에 주어가 문두에 놓여 있고, **관계대명사** ὅς가 주어를 수식해 주는 구조에서 기인하는 어순이다.¹⁷⁾ 우리말에는 관계대명사가 없을 뿐만 아니라, 모든 수식어는 수식받는 말 앞에 위치해야 한다. 물론 이렇게 한국어의 어순을 지키는 것이 반드시 충실한 번역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다만 비교적 어순이 자유로운 그리스어의 특징과는 별개로, 바울의 글에서 문장의 처음에 위치한 저자의 표시는 나름의 의미가 있다.¹⁸⁾

바울의 칭의론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본문 로마서 1:17에도 유사한 내용이 관찰된다. “하느님의 의는 복음에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르게 하니 이와 갓치 성경에 썬서 날넛스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니라 하섯느니라” →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나르게 하나니 기록된바 오직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니라 함과 갓흐니라.” 이 두 번역을 그리스어 원문과 비교하면 δικαιοσύνη γὰρ θεοῦ ἐν αὐτῷ ἀποκαλύπτεται라는 17상반절의 ‘하나님의 의’는 『구역』과 『개역』에서 각각 어순이 다름을 알 수 있다. 『구역』이 원문의 어순을 더 충실히 따르고 있다. 17하반절에서도 『구역』은 ‘이와갓치’를 먼저 적는 데 반해, 『개역』은 ‘갓흐니라’를 문장의 마지막에 옮기고 있다. 17하반절의 인용문이 καθὼς γέγραπται로 시작하는데 『구역』은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것을 두고 어떤 번역이 더 우월한가를 판단할 수는 없다. 직역이나 문자역이라 하더라도 원문의 어순까지 따르는 것을 반드시 ‘충실한’ 번역이

16) 한글 성경에서 원인 구문의 위치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전무용, “『성경전서』와 『성경개역』의 한국어 문장 비교: 요한복음 1장~10장의 어순을 중심으로”, 167-169.

17) 『구역』의 관계대명사 처리에 대해서는 Ibid., 166.

18) 이런 점은 흔히 바울이 격분한 나머지 평소 서신의 양식 및 인사도 생략하는 구절로 운위되는 갈 1:1에도 적용된다. “스도 바울의 스도 된 거슨 사름의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름으로 말미암아 된 것도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와 밋 죽은 가온디서 그리스도를 살니신 하느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거시라” → “사름들의게서 난 것도 아니오 사름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밋 죽은자 가온대서 그리스도를 살니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구역』에서는 갈라디아서도 ‘**발신자**(편지의 첫 단어) – **수신자**’로 시작되는 고대 편지의 양식을 따르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원문의 의미가 번역문에서 제대로 표현되고 전달되느냐이다. 그러나 필자는 달리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원문의 어순을 따르는 편이 더 좋다고 본다. 첫째, 그리스어 문장은 기본적으로 문두와 문미의 단어를 강조한다.¹⁹⁾ 우리말도 문장의 첫 단어가 독자의 주목을 끌 수밖에 없고 이를 조사 등을 통해서 원문이 지시하는 바를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원문의 어순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²⁰⁾ 둘째, 더욱 중요한 이유는 우리말의 언어적 특징 때문이다. 한국어는 관계대명사가 없고 주어가 생략되는 문장도 많으며, 대명사가 발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문장 성분 사이의 관계가 분명하지 않으므로, 문장이 길어질수록 독자의 이해는 어렵게 된다.

앞에 예시했던 로마서 5:8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셨다’(A)라는 문장과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B)라는 문장의 논리적 관계가 문제의 핵심이다. 『구역』이 ‘A ← B’의 구조라면, 『개역』은 ‘B → A’의 구조를 따르고 있는 셈이다. 주절과 종속절에서 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주절에 포함되어야 명확한 의사 전달이 가능하다. 종속절은 주절을 논리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수행할 뿐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이다.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다’라는 두 문장이,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사랑을 보여 주신 것이다’라는 한 문장보다 이해하기 쉽다.²¹⁾ 후자의 경우 양자의 논리적 관계는 문장 전체를 읽고 그것을 머릿속에서 한 번 더 ‘되새겨’ 볼 때 이해할 수 있다. 글로 쓴 것이 이렇다면, 청각체도 중시해야 하는 성경 번역에서는 더 말할 나위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도 굳이 수식절로 번역하기를 고집할 필요 없이, 이어지는 문장의 대명사 주어로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불가피하기도 할 것이다.²²⁾

19) H. v. Siebenthal, *Griechische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Basel: Brunnen/Immanuel, 2011), § 127.

20) 이는 일반 독자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겠으나, 번역과 편집에 있어 교열과 점검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21) 이 내용은 전무용이 이미 『구역』과 『개역』의 요한복음을 비교함으로써 밝힌 바 있다. 전무용, “『성경전서』와 『성경개역』의 한국어 문장 비교: 요한복음 1장~10장의 어순을 중심으로”, 166-169.

22) 이것은 번역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본래 그리스어 문법에서도 통용되는 사항이다. H. v. Siebenthal, *Griechische Grammatik*, § 289i.

3.1.3. 한자와 한글 역어

『개역개정』이 『개역』 성경의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시켜서 더 쉬운 한자나 한글로 바꾸는 경향을 보인 것에서 볼 수 있듯이, 통상 개정은 쉬운 말로 고치게 마련이다. 그러나 『개역』은 도리어 『구역』의 한글 역어를 한자로 대체하였다. 다음을 예를 보자.

“그 뜻의 오묘한 거슬” → “그 뜻의 비밀을”(엡 1:9); “더욱 아름다움을 인함이라” →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빌 3:8); “대개 만물이 그의게 지음을 받은지라” → “만물이 그의게 창조되대”(골 1:16); “저즈” → “시장”(고전 10:25); “버릇” → “습관”(고전 8:7); “거짓 착한데 함으로” → “외식함으로”(갈 2:13); “부탁 받은자와 집 맞춘자 아래 잇나니” → “후견인과 청직이 아래 잇나니”(갈 4:2); “불법의 괴미” → “불법의 비밀”(살후 2:7); “마음이 문허지고” → “마음이 부패하여지고”(딤펴전 6:5); “예수를 인하여”²³⁾ → “예수를 위하여”(고후 4:5).²⁴⁾

한편 “오랑캐” → “야만”(고전 14:11); “사나회” → “남자”(고전 11:3-4) 같은 경우는 『구역』이 특색 있는 한글 번역을 시도한 것²⁵⁾이 한자어로 바뀌어서 퇴보한 부분으로 보인다. 후술하겠으나 외국인 선교사가 시도한 토착화가 정작 한국인 개정자에 의해서 환원된 아이러니로 봐도 좋을 것 같다. 단순히 치환 가능한 역어의 문제를 넘어 신학적으로 중요한 개념도 사정은 유사하다. 고린도후서 12:7 “내 살에 찌르는 가시 하나를 주셨스니 곳사단의 스자요 나를 치는 자라” → “내 육체에 가시 곳사단의 사자를 주셨스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안케 하려 하심이니라.” 『구역』은 ‘살’이라는 말을 쓰는 데 반해, 『개역』은 ‘육체’, ‘육’이라는 말을 선호한다.

23) 물론 이런 원칙이 일관되게 지켜진 것은 아니다. 『구역』 롬 4:25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고 옮겼으므로, 이미 διά를 한글 어감에 맞게 각각 다르게 번역하였다. 이에 대해서 E.-G. Lyu, *Sünde und Rechtfertigung bei Paulus: Eine exegetische Untersuchung zum paulinischen Sündenverständnis aus soteriologischer Sicht*, WUNT 2.31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108-110.

24) διά Ἰησοῦν을 『구역』은 ‘예수를 인하여’로 직역했다면, 『개역』은 ‘위하여’로 바꿈으로써 2번 사용된 διά의 뜻에서는 멀어졌지만, 좀 더 이해하기 쉬운 역문으로 고쳤다.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고후 4:5의 한역 자체에 대한 것이다.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 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 구절은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다. 본문의 구조는 ἑαυτοὺς와 Ἰησοῦν Χριστόν을 병렬로 놓고 κύριον을 목적보어로 봐야, 문장 구조는 흐트러지지 않는다. 환언하면 선포의 대상인 ‘우리’와 ‘그리스도 예수’가 동격으로 놓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따라 필자가 고후 4:5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주님으로 선포했고**, 예수 때문에 우리 자신을 여러분의 종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25) 소기천,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139.

물론 『개역』이 『구역』의 용어를 무조건 한자화한 것만은 아니고, 그 반대의 예도 발견된다. “나의 연고로” → “나로 말때암아”(갈 1:24); “이 디방에 전도할 곳이 업고” → “이제는 이 디방에 일할곳이 업고”(롬 15:23); “형테들아 쎄와 괴약을 의론컨대” → “형테들아 쎄와 시기에 관하야는”(살전 5:1). 또 어려운 한자어를 『개역』이 좀 더 쉬운 한자어로 바꾸기도 한다. “침륵하난쟈” → “망하는쟈”(고후 2:15); “오묘흔 도” → “비밀”(고전 4:1).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한글로 되어 있는 말을 한자로 대체한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이것은 한국의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을 주도하던 상황을 벗어나, 양반 등 수용자의 입장을 반영한 개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선한문성경전서』에서 보듯이 이들은 한자를 선호하는 사람들이었고,²⁶⁾ 이렇게 한자 중심의 성경 번역은 기독교의 저변이 확대된 흔적으로 보인다. 『구역』보다 『개역』이 더 어렵게 느껴지게 된 대표적인 이유이다.

대단히 어려운 문제는 『구역』이 ἐπαγγελία를 『개역』처럼 ‘약속’이 아니라, ‘허락’이라는 말로 번역한다는 점이다. “허락” → “약속”(롬 9:8; 15:8; 갈 3:14, 17, 18, 22, 29; 4:23; 고후 1:20; 엡 3:6; 딤후 1:1 등).²⁷⁾ 이것은 16세기의 루터역(LUT)이나 17세기의 흠정역(KJV) 역시 일관되게 ‘약속’으로 옮기므로 서양 역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어 원문 중 ‘허락’으로 적는 사본 역시 없으므로 본문비평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필자가 추정하는 바로는, 『구역』의 번역자가 중국어 성경을 참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현상이 아닌가 한다. 가령 갈라디아서 3:22는 使所应许的福因信耶稣基督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 许는 ‘약속하다’ 외에 ‘허락하다’의 뜻이 있기 때문이다. 만일 『구역』의 번역자가 그리스어 원문을 놓고 대조했다면 나올 수 없었던 번역이다. 『구역』이 중국어 성경을 ‘주요’ 참고했다는 단서라고 본다. 그리스어 원문과 대조했던 『개역』이 이를 바로 잡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개역』이 『구역』을 공연히 더 어렵게 바꾼 것으로 평가하는 것은 곤란하다. “죄를 덩함” → “덩죄함”(롬 8:1); “싱명의 성신의 법이 나를 노하죄와 스망의 법에 버셔나게 하였느니” →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슴이라”(롬 8:2)에서 볼 수 있듯이, 한자어 번역이 순 한글 번역이 이루기 어려웠던 개념화에는 유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벗어나게 함’과 ‘해방’ 중에 개념화가 더 쉬운 것은 후자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성령이 죄에서 벗어나게 함’보다는 ‘성령의 해방’이 간결한 표현일 뿐

26)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83.

27) 반면 『구역』 롬 4:13, 16, 20은 일관성을 잃고 “언약”이라 번역한다.

만 아니라, 별도의 논의를 위한 개념으로 사용하기에 더 편리하다.²⁸⁾ 이것은 성경의 번역에 있어서 확일적으로 단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번역이 본래 기획된 소기의 목적에 따라 다르다고 말해야 공정할 것이다.

3.1.4. 주어의 표기

『구역』이 주어를 밝힌 곳에서, 『개역』은 생략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알아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롬 1:21);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앗기지 아니하시고” → “자기 아달을 앗기지 아니하시고”(롬 8:32); “너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스승은 일만으로 되 아버지는 만치아니하니” →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잇스되 아버지는 만치아니하니”(고전 4:15); “너희는 믿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 “마암으로 우리를 영접하라”(고후 7:2; 빌 3:5 참조).

서양어는 주어를 밝히지 않으면 대부분 문장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 데 반해, 우리말은 문맥상 자명하면 주어 없는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²⁹⁾ 『개역』의 ‘운문’을 긍정적으로 말하면, 『구역』이 『개역』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번역투를 탈피하여 좀 더 우리말다운 표현으로 진화한 대목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주어가 생략될 경우 오해의 소지도 있다. 마태복음 6:34 “릭일 일은 리일 넘려홀 거시오”를 『개역개정』이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로 바로잡은 것도 사실 주어를 자주 생략하는 우리의 언어 습관과 관계가 있다. 주어의 생략으로 발생한 모호함이 특별히 문학적인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면, 어색하지 않는 한 주어를 명확히 밝히는 번역이 더 바람직하다고 본다.

3.2. 성서 본문의 내용에 따른 개정

3.2.1. 본문비평적 문제

우리가 『구역』과 개정을 비교하다보면 단순히 단어를 어찌 번역하느냐라는 차원을 넘어 완전히 다른 원문에서 번역한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구

28) 이것이 필자가 한자어를 배제하는 번역이 무조건 이해하기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유이다. 한글은 한자어로 구성된 것이 60% 이상이다. 소위 ‘우리말 우선주의’를 위해서 한자어를 배제하자는 것은, 게르만이나 로망스어군의 언어에서 라틴어를 배경으로 한 단어를 사용하지 말자는 주장이 비현실적인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같은 표현이 있으면 한글 단어를 선호할 수 있으나, 가급적 쓰지 말자는 주장에 언제나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29) 이에 대해서,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103.

절이 발견된다. 이른바 본문비평적인 문제가 개입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래의 예를 살펴보자.

“만일 아지못흐는자가 잇거든 그 아지못흐는대로 두라” → “만일 누구던지 아지못하면 그는 아지못한자니라”(고전 14:38). 『구역』과 『개역』은 사본에 따라 각각 ἀγνοεῖτω와 ἀγνοεῖτε를 택한 것이다. 역자들이 얼마나 본문비평적인 논의를 거쳐 개정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적어도 오늘날의 본문비평적 견해에 부합하는 쪽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느님으로 더브러 화평함이 잇고”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브러 화평을 누리자”(롬 5:1). 이것도 사본에 따라 각각 ἔχομεν과 ἔχωμεν을 본문으로 택해서 달라진 것이다. “이를 인하여 하느님의 진노함이 순종치 아니흐는 자식들의게 림흐는니라” →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림하나니라”(골 3:6). 『개역』은 더 좋은 사본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자식들에게’라는 말을 생략했다.

『구역』이 대본으로 삼은 본문이 어떤 것이었는지 아직 분명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개역』은 좀 더 본문비평적인 차원에서 『구역』을 고친 것으로 볼 수 있다.³⁰⁾ 이렇게 본다면, 그리스어 성서를 기반으로 『구역』의 부족함에 대해서 비평하는 것은 상당히 제한적으로만 타당한 것이라 판정할 수 있다.³¹⁾ 아울러 『구역』의 번역이 오늘날의 본문 이해와 달라졌다면, 사본학적으로 논란의 여지가 큰 ‘공인본문’(Textus Receptus)을 기본으로 번역을 시도했던 것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³²⁾ 『개역』은 이런 관점에서 훨씬 더 비평적이며 진일보한 번역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3.2.2. 신학적인 해석에 따른 개정

성서의 번역에 있어서 ‘해석’은 불가피하다. 환언하면, 번역자의 주관이 개입하지 않은 객관적 번역이란 존재할 수 없다는 말이고, 과정을 규명하지 않았을 뿐 모든 번역에는 나름의 주석이 개입했다는 뜻도 된다. 이것이 새로운 번역과 그 개정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이유 중의 하나라고 하겠다. 『구역』을 개정한 『개역』에도 이러한 측면을 볼 수 있다.

30) 이에 대해서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대본 고찰: 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31; 박동현,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10-11.

31) 대표적으로, 김창락,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검토 제2부: 마태복음서 번역의 과오와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 (2010), 48-56.

32)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35.

고린도후서 5:5을 보자. “곳 이거슬 엇게 흐라고 우리를 몬드신이는 하나님이니 성신을 우리에게 주어 표를 삼으셨도다.” → “곳 이것을 우리의게 일우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의게 주신이는 하나님이니라.” 『구역』이 ‘표를 삼다’라고 번역한 것을 『개역』은 ‘보증으로 주셨다’고 고친다. 원문의 ἄραβών을 단순히 ‘표’ 정도로 처리한 것은 바울의 성령론의 핵심을 놓친 것이다.³³⁾ 물론 ‘표’라는 말도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그 과정과 논리가 누락되었다. 바울은 믿음을 ‘성령의 역사’로 이해한다(고전 12:3). 바로 크리스천의 구원을 시작한 분도 성령이요(롬 8:14), 이제 그들은 성령이 시작한 구원의 완성을 기다린다(롬 8:23). 마치 자동차를 살 때 처음 지불한 금액이 미미하더라도 자동차 전부를 소유할 수 있듯이, 우리의 믿음 — 그것도 성령이 지불하신 것이다! — 이 구원의 전부를 누릴 수 있게 해 준다. 『개역』은 이런 점을 반영하여 ‘보증’으로 바꾼 것으로 보인다.³⁴⁾ 물론 앞으로 새롭게 번역될 성경에서는 ‘보증’보다도 ‘선금’이나 ‘보증금’이라는 말로 옮기는 것이 현대인이 더욱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 될 것이다.

『개역』이 『구역』을 고친 것이 도리어 더 안 좋아진 사례로는 로마서 7:9를 꼽을 수 있다. “전에 법 업슬 때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니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니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본 구절은 ἐγὼ δὲ ἔζων χωρὶς νόμου ποτέ의 번역이다. 『구역』처럼 ‘율법이 없을 때는 살았으나’라고 옮기면 될 것을,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라고 고침으로써 바울이 의도한 바에서 멀어지고 말았다. 아마도 『개역』의 번역자는 바울이 전직 바리새인으로서 ‘율법이 없는 삶’을 한 번도 겪은 적이 없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보인다. 혹시 쿨멜(W. G. Kümmel)의 연구 이래 바울 주석가 사이에 당연한 전제가 된 바, 로마서 7장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무관한 본문이라는 견해에 영향을 받은 것인지도 모르겠다.³⁵⁾ 그러나 본 어구는 ‘율법 없을 때’로 번역하는 것이 타당하다.

일단 로마서 7장을 바울의 개인사와 관계가 없고 아담의 자아를 반영하는 걸로 이해한다면,³⁶⁾ 모세의 율법이 도래하기 전(9하반절) 문제없이 살던 시절을 반영하는 걸로 이해할 수 있다. 그것이 아니더라도, 로마서 7:1-6에

33) 이것은 『구역』 고후 1:22에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더가 쏘흔 우리의게 인을 치시고 쏘 성신을 우리 믿음에 두샤 장춧 은혜 밧을 표를 삼으셨느니라.”

34) 이에 대해서 A. Sand, “ἄραβών”, EDNT I, 157-158.

35) 참조 W. G. Kümmel, *Römer 7 und die Bekehrung des Paulus*, UNT 17 (Leipzig; Hinrichs, 1929), 115-117. 『개역』의 번역자가 이 연구를 참조했을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 같다.

36) H. Lichtenbergter, *Das Ich Adams und das Ich der Menschheit: Studien zum Menschenbild in Römer 7*, WUNT 164 (Tübingen: Mohr Siebeck, 2004), 131-135.

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십자가의 체험이 율법에 대한 죽음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하는 것 역시 가능하다.³⁷⁾ 이렇게 보면 최소한 로마서 7:9을 토대로 로마서 7장 전체가 바울의 개인적인 경험과 무관하다는 킴멜의 논거는 근거가 없는 것이다.

또한 속고를 요하는 구절은 로마서 3:25이다. “하느님께서 예수를 속죄하는 제물노 세우시매 사름이 그 피를 밋는지라” →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인하여 밋음으로 말때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스니”. 『개역개정』이 『개역』을 따라 ‘화목제물’이라는 역어를 선택한 것은 별반 특이 사항이 아니겠으나, 우리의 주목을 끄는 것은, 왜 『구역』의 ‘속죄하는 제물’을 ‘화목제물’로 바꾸었느냐라는 점이다. ἱλαστήριον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는 바울 연구가 사이에서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³⁸⁾ 따라서 이 난해한 단어를 『구역』과 『개역』이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현대 신약학계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일이다. 성서학계의 연구 결과는 오랜 시간이 흐른 뒤, 매우 보수적으로 성서 번역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최소한 『개역』이 ἱλαστήριον을 ‘화목제물’³⁹⁾로 번역한 것만큼은 잘못된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우선 칠십인역 어디에서도 ἱλαστήριον이 화목제물로 번역된 사례는 없다.⁴⁰⁾ 화목제는 일관되게 ἡ θυσία [τοῦ] σωτηρίου로 처리된다. 칠십인역은 תְּחִינָה를 시종일관 ἱλαστήριον로 번역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를 따라 ‘속죄소’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그것이 어렵다면 4마카 17:21-22을 따라 ἱλαστήριον를 형용사 ἱλαστήριος의 명사형으로 보고, ‘속죄제물’로 번역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⁴¹⁾

물론 ἱλαστήριον을 ‘속죄소’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는 주석적 판단이 곧바로 성서 번역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이 예수 [사

37) 이런 점에서 『개역개정』이 롬 7:9하의 ἀναζάω를 단지 ‘살아나다’로 부정확하게 번역한 것은 아쉽다(『구역』과 『개역개정』도 동일). ‘다시 살아나다’라는 뜻을 살려, ‘계명이 오자, 죄가 다시 살아났다’로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E.-G. Lyu, *Sünde und Rechtfertigung bei Paulus*, 324-325.

38) 이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로, W. Kraus, *Der Tod Jesu als Heiligtumsweihe: Eine Untersuchung zum Umfeld der Sühnevorstellung in Römer 3,25-26a*, WMANT 6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33-70.

39) 필자의 판단에 카포레트(תְּחִינָה)를 ‘속죄소’로 이해하는 최대 난관은 이 단어 앞에 관사가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물론 문법적으로 술어(predicate)는 관사를 붙이지 않지만, 속죄소 같이 유일한 대상을 지칭할 때는 정관사와 함께 사용하는 것(determination)이 일반적이다. BDR, § 273; Smyth, § 1133.

40) 출 25:17, 18, 19, 20, 21, 22; 31:7; 35:12; 38:5, 7, 8; 레 16:2, 13, 14, 15; 민 7:89; 4마카 17:22; 암 9:1; 겔 43:14, 17, 20.

41) 참조 S. Brandt, *Opfer als Gedächtnis: Auf dem Weg zu einer befreienden theologischen Rede von Opfer*, ATM 2 (Münster: Litt, 2001), 213. 『새번역』은 이 ‘속죄제물’을 역어로 택했다.

건]를 속죄소로 삼으셨다”는 표상은 난해하고 그 의미가 잘 통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에 ‘해설’을 덧붙여 이해를 돕는 것이 ‘번역’의 과제를 넘어서는 것이라면 최소한 난하주라도 덧붙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젊은 세대를 위한 쉬운 번역이라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곳”으로 풀어 옮길 수도 있다.

로마서 4:1도 『개역』이 『구역』보다 퇴보한 사례로 거론될 만하다. “그런즉 육신으로 말하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어슬 얻었다 하리오” →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오”. 원문이 까다로운 구문으로 구성된 것은 아니지만, 번역에 따라 판이한 해석에 도달할 수 있다. Τί οὖν ἐροῦμεν εὐρηκέναι Ἀβραάμ τὸν προπάτορα ἡμῶν κατὰ σάρκα; 우리는 κατὰ σάρκα라는 전치사구를 τὸν προπάτορα ἡμῶν에 붙일 것인지, 아니면 εὐρηκέναι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질문할 수 있다.⁴²⁾ 『개역개정』은 전자를 따라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라는 『개역』의 역문을 취하고, 난하주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육으로”라고 후자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에, 로마서의 논증 과정을 고려하면 『개역』의 번역은 타당성이 떨어진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동등한 칭의를 논하는 편지에서, 심지어 그리스도 신앙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육신의 조상’으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 자체가 이미 심각한 차별이기 때문이다. 이방인은 심지어 유대교로 개종하더라도, 그의 씨를 토대로 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간주되지 않았다.⁴³⁾ 이렇게 보면, 『구역』의 번역은 전자와 후자의 가능성 모두를 열어 둔 것이다. 바로 원문의 중의적 형태를 적절히 한역에 반영함으로써 현실적으로 최선의 번역을 강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구역』의 로마서 6:23은 “대개 죄의 값은 스망이오 오직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는 영성이니 곳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잇는 거시니라.” 『개역』은 이것을 “죄의 값은 사망이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잇는 영성이니라”로 개정한다. 『구역』은 ‘죄의 값은 사망’, 즉 ‘죄를 지은 대가는 죽음이다’라는 의미로 이해한 것 같다. 그러나 이것은 ὀψώνια τῆς ἁμαρτίας를 직역한 것에 불과하다. 본문의 문맥과 죄를 인격화하는 바울의 논증을 감안하면, ὀψώνια는 단순히 ‘값’이 아니다. 인격화된 죄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어 최악된 행위로 유도한 후, 이에 대한 ‘급료’를 주는데, 그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역설이다.⁴⁴⁾ 이어지는 23하반절의 논리, 즉 하나님이 믿

42) 이에 대해서, 유은걸 “‘아브라함의 자손’: 한 유대적 개념의 기독교화 과정”, 『구약논단』 30 (2008), 119-121.

43) Ibid., 115.

음의 대가가 아닌 ‘은혜’로 주시는 것은 영생이라는 취지의 주장과 매우 긴밀한 관계에 놓여 있다. 『개역』은 『구역』이 놓친 부분을 살려서 ‘죄의 값은 사망이요’라고 옮겼고, 이는 『개역개정』까지 유지된다. 그러나 필자의 판단에, 좀 더 적극적으로 ‘죄가 지불하는 급여는 죽음이고, 하나님은 은혜로 주신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옮기면 원문의 뜻을 더 잘 살릴 수 있다고 본다.

3.2.3. 기타 제안 사항

본 소론은 기본적으로 『구역』과 『개역』의 차이점을 비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양자에 별반 차이가 없어도 차후의 번역과 개정을 위해서 제안할 사항도 있다. 그 중 첫 번째는 성경 번역에 있어서의 ‘토착화’를 어느 정도 수용할 것이냐는 것이다. 『구역』 번역자들이 겪었을 가장 큰 어려움은 아마도 성서 속의 단어가 당시 조선의 현실 가운데 대응어가 없는 경우였을 것이다.⁴⁵⁾ 그 대표적인 사례가 “하나님”⁴⁶⁾, “의”⁴⁷⁾, “떡”⁴⁸⁾ 등의 번역이었다. 그 중에서 떡은 최적의 단어이어서가 아니라, 당시 조선의 현실에 빵이 없기 때문에 사용한 말일 것이다. 빵이 동양인의 식탁에 오르는 오늘날에도 떡이라는 고육지책을 고수해야 하는지는 의문시된다. 민영진의 주장대로 빵은 주식이요, 떡은 간식에 불과하며 성찬식에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다. 과도한 토착화는 독자들도 인지하고 있는 성서의 역사적 성격을 흐리게 만든다. 우리 모두는 성서가 우리 문화와 전혀 다른 배경에서 산출되었다는 것을 의식한 채 본문을 읽는다.

또 한 가지는 갈라디아서 3:24 등의 “몽학선생”이다. 『개역』은 『구역』의 용어를 교체하지 않았으나 『개역개정』이 이를 “초등교사”로 바꾸었다. 그리스의 παιδαγωγός는 교육받은 노예가 주인의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가르치고 보호하는 사람이었다.⁴⁹⁾ 한국에는 고금을 막론하고 없는 개념이다. “몽학선생”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말이고 “초등교사”는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오해하기 쉽다. 『새번역』의 “개인교사”를 보면 독자는 ‘과의 선생님’을 연상할 것이다. 이 경우는 ‘후견인’ 정도로 옮기고 난하주에 간략한 설명

44) E.-G. Lyu, *Sünde und Rechtfertigung bei Paulus*, 324-325.

45) 선교사들의 고층에 대해서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172.

46) 이에 대해서 Ibid., 104-118.

47) Ibid., 40.

48) Ibid., 42. ἄρτος를 ‘떡’ 또는 ‘빵’으로 번역해야 할지에 대한 문제는 『표준』을 출간할 당시에도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275-276.

49) G. Schneider, “παιδαγωγός”, *EDNT* III, 2-3.

을 덧붙이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⁵⁰⁾

『구역』과 『개역』 및 그 전통을 따르는 역본에서 가장 납득할 수 없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의 γράμμα 번역이다. 『구역』이 “의문”(儀文)으로 옮긴 것을 『개역』이 그대로 두었다면, 그 번역이 문제가 없다고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왜 『개역개정』이 이 어려운 한자어를 “율법 조문”으로 바꿨느냐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고린도후서 3장의 논지는 매우 이해하기 어렵게 되었다. 가장 쉽고 정확한 ‘문자’ 또는 ‘글자’라는 역어 대신 “율법 조문”이라는 말이 등장함으로써, 문자로 쓴 추천장을 거부하는 바울의 의도는 가려지고 말았다. 물론 그는 문자로 기록된 추천장뿐만 아니라, 모세의 율법 양자를 모두 비판하고 있으나, 명시적인 공격의 대상은 전자요, 후자는 그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암시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바울의 신학에서 매우 중요한 δικαιώω의 처리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싶다. 사실 이 단어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단순히 성서 번역의 차원을 넘어, 신학사적인 의의가 있는 것이다. ‘의를 얻다’라고 이해하면 루터의 득의 사상(iustitia imputativa)에 해당할 것이고, ‘의롭게 되다’라면 가톨릭의 의화 교리에 가까울 것이다. ‘의롭다고 칭하다/인정 받다’라고 말하면 츠빙글리의 칭의 개념을 연상하게 된다. 『구역』이 갈라디아서 2:16에서 “사람이 율법의 일을 힘으로 의를 얻지 못하고”라고 한 것을 『개역』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로 고쳤는데, 특별한 신학적인 의도 아래 고친 것 같지는 않다. 로마서 3:20, 24; 4:2; 갈라디아서 2:17; 3:11, 24 등을 보면 『개역』은 물론, 『구역』도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건이지만, 『구역』과 『개역』이 종교개혁의 전통 아래 개신교에서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의롭다 함을 얻다’나 ‘의롭다고 인정받다’로 통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4. 나오는 말

본 소론에서 논의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구역』을 개정한 『개역』은 여러 시대적인 요청에 따른 것이지만 항상 개선을 가져온 것은 아니

50) 『민중국어사전』에 따르면 ‘후견’은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나 금치산자를 보호하며 그의 법률 행위를 대리하는 직무”라고 되어 있다. 완벽하게 정확한 말은 아니지만, 기존의 역어 중에는 가장 나은 것이며 별도의 설명을 덧붙일 때 이해가 가능하다고 본다. 유사한 또 다른 난제인 “초등학문”(갈 4:3, 9; 골 2:8, 20; 히 5:12; 벧후 3:10, 12)도 자연과학적 기초 원리를 가리키므로, ‘기초학문’ 정도로 번역하고 난하주로 자연과학적 배경을 밝히면 어떨까 싶다.

었다. 오히려 『구역』 성경이 순수한 한글 어휘를 사용하여 흘문장으로 전달력 높은 성서 역본을 내놓은 측면이 있다. 『개역』은 『구역』의 오류나 미비한 점을 바로잡고 독자층의 요구를 수용하여 한자어 역어를 채택했다. 그 결과 중요한 신학적 개념을 정립하는 데 기여하였다. 아울러 본문비평적인 면을 십분 고려함으로써 전문적인 성서 번역의 첫걸음을 디뎠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국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선교사들이 주도한 『구역』이 우리말에 더 적합한 번역을 제시했다는 아이러니는 향후 우리말 성경의 번역과 개정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주제어>(Keywords)

『구역』(1911), 『개역』(1938), 개정, 퇴보, 본문비평.

the Korean Bible (1911),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38), Revision, Deterioration, Textual Criticism.

(투고 일자: 2019년 7월 31일, 심사 일자: 2019년 8월 23일, 게재 확정 일자: 2019년 10월 25일)

<참고문헌>(References)

- 『성경개역』, 서울: 성서공회, 1938.
- 김창락,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검토 제2부: 마태복음서 번역의 과오와 계승 방안을 중심으로”, 『Canon&Culture』 4 (2010), 37-70.
- 류대영, 옥성득, 이만열, 『대한성서공회사 II: 번역·반포와 권서사업』, 서울: 대한성서공회, 1994.
- 민영진, 『개역개정판 이렇게 달라졌다』,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3.
- 민영진, 『히브리어에서 우리말로』, 서울: 두란노, 1996.
- 박동현, “한국 교회에서 개역 성경이 갖는 의의”, 『한글 성경 번역과 보급의 역사: 대한성서공회 창립 120주년 기념 학술 심포지엄』,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5, 7-55.
- 소기천, “1911년 『성경전서』의 한국 문화사적 가치에 관한 연구”, 『Canon&Culture』 4:1 (2010), 127-157.
- 옥성득, 이만열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2권: 켈뮤어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06.
- 옥성득 편역, 『대한성서공회사 자료집 3권: 밀러 서신』, 서울: 대한성서공회, 2011.
- 유은걸, “‘아브라함의 자손’: 한 유대적 개념의 기독교화 과정”, 『구약논단』 30 (2008), 103-124.
- 이달, “『성경전서』(1911년)의 요한계시록 번역 특징에 대한 고찰”, 『Canon&Culture』 4 (2010), 71-97.
- 이환진, “『성경전서』(1911년)의 번역 대본 고찰: 시편(85:10-13)과 잠언(1:1-7)과 욥기(1:20-2:6)를 중심으로”, 『성경원문연구』 27 (2010), 31-25.
- 전무용, “『성경전서』와 『성경개역』의 한국어 문장 비교: 요한복음 1장~10장의 어순을 중심으로”, 『한남어문학』 33 (2009), 155-177.
- 전무용, “한국어 성경의 대명사 고찰”, 『성경원문연구』 19 (2006), 96-122.
- 켈러, 크리스토프, “루터 성경의 재검토: 문제, 원칙, 결과 및 남은 문제”, 유은걸 역, 『성경원문연구』 36 (2015), 311-330.
- Brandt, S., *Opfer als Gedächtnis: Auf dem Weg zu einer befreienden theologischen Rede von Opfer*, ATM 2, Münster: Litt, 2001.
- Elliger, W., “εἰς”, Horst Balz and Gerhard M. Schneider, eds., *EDNT I*, Grand Rapids: Eerdmans, 2004, 399.
- Kähler, Ch., “Erneute Durchsicht der Lutherbibel: Probleme, Grundsätze, Ergebnisse und offene Fragen”, M. Lange, M. Rösel, hg., *Was Dolmetschen für Kunst und Arbeit sei: Die Lutherbibel und andere deutsche Bibelübersetzungen*, Stuttgart: Deutsche Bibelgesellschaft, 2014, 165-182.
- Kraus, W., *Der Tod Jesu als Heiligtumsweihe: Eine Untersuchung zum Umfeld der Sühnevorstellung in Römer 3,25-26a*, WMANT 66, Neukirchen-Vluyn: Neukirchener, 1991.

- Kümmel, W. G., *Römer 7 und die Bekehrung des Paulus*, UNT 17, Leipzig: Hinrichs, 1929.
- Lichtenberger, H., *Das Ich Adams und das Ich der Menschheit: Studien zum Menschenbild in Römer 7*, WUNT 164, Tübingen: Mohr Siebeck, 2004.
- Lyu, E.-G., *Sünde und Rechtfertigung bei Paulus: Eine exegetische Untersuchung zum paulinischen Sündenverständnis aus soteriologischer Sicht*, WUNT 2.318, Tübingen: Mohr Siebeck, 2011.
- Räsänen, H., *Paul and the Law*, WUNT 29, Tübingen: Mohr, 1987.
- Sand, A., “ἄρραβών”, Horst Balz and Gerhard M. Schneider, eds., *EDNT I*, Grand Rapids: Eerdmans, 2004, 157-158.
- Schneider, G., “παῖδαγωγός”, Horst Balz and Gerhard M. Schneider, eds., *EDNT III*, Grand Rapids: Eerdmans, 2004, 2-3.
- Sieenthal, H. v., *Griechische Grammatik zum Neuen Testament*, Basel: Brunnen/Immanuel, 2011.
- Smyth, H. W., *Greek Gramma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1133.

<Abstract>

**Comparison between the Korean Bible and the Korean Revised Version:
Focusing on Pauline Texts**

Eun-Geol Lyu
(Hoseo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ompare the Korean Bible (*the Complete Bible*, 1911) and the Korean Revised Version (1938) and to make some contributions to revision and translation to be prepared in the future. Contrary to our belief that a revision of Bible translation leads to a better rendering of God's Word, we have ample cases where the Korean Bible beats the Korean Revised Version, especially in that the former uses the spoken language of the ordinary people at the time of translation.

Nevertheless, the Korean Revised Version should not be understood as mere deterioration of the Korean Bible since this revision in 1938 reflects the results of textual criticism and offers a new translation in which significantly greater number of words from Chinese characters are involved. The Korean Revised Version was well received by the aristocratic people who preferred Chinese characters. This shows that a Bible translation reflects the cultural background from which it has been brought forth.

We therefore cannot simply conclude that the Korean Revised Version improved the Korean Bible in every respect. Ironically enough, the Korean Bible translated by foreign missionaries employs more words of Korean origin than its revision which was prepared mostly by Korean ministers. We come to conclusion that both translations are results of constant efforts to answer the needs of their times.